

재활용 원료 기반 신소재, 'Refibra'

셀룰로스 섬유 제조업체인 렌징(Lenzing)사는 면 폐기물 및 목재 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재생섬유인 'Refibra'를 개발하였다. 'Refibra' 섬유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여 상용화 규모로 제조된 최초의 셀룰로스 섬유이며, 2017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Premier Vision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Refibra' 섬유는 친환경적인 텐셀 리오셀 공정을 거쳐 제조되며, 렌징사는 생산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섬유산업이 순환경제에 돌입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또한 'Refibra' 섬유는 2025년까지 의류제품의 수요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섬유 산업에서는 원료의 출처를 증명하는 문제가 점차 투명해지고 있다. 렌징사는 재활용 원료 기반의 섬유가 실제로 원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최종 제조된 원단에서 'Refibra' 섬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체 제조 공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된다.

